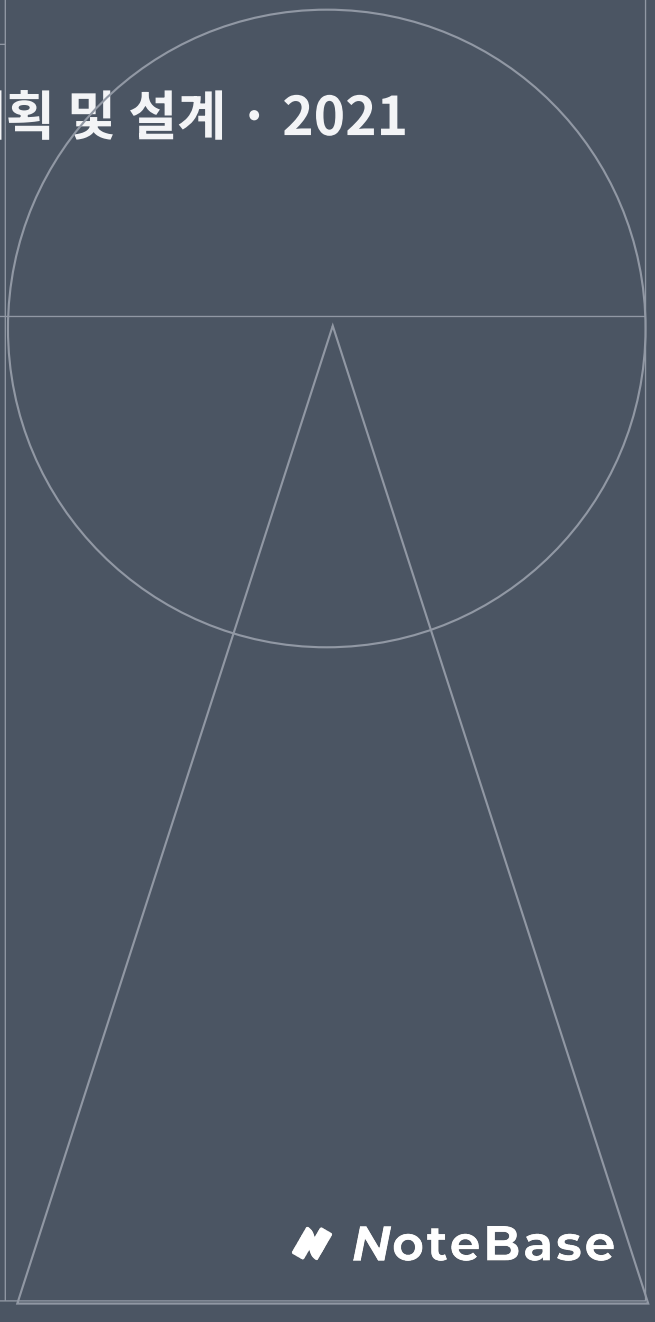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1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1

문 1. 조경법규의 유형을 개발계획과 보전관리로 구분하였을 때, 개발계획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④ 「경관법」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 관련 법규를 개발계획형과 보전관리형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각 법률의 주된 규율 대상이 국토·도시 공간의 계획과 조성인지, 산림자원의 조성·보호·관리인지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개발계획은 국토 이용, 도시공원·녹지 조성, 경관 형성처럼 공간을 계획하고 만들어 가는 법규 영역이다.
보전관리는 기존 자원과 환경을 조성·보호·관리하는 법규 영역이다.

핵심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경관법은 도시와 국토 공간을 계획하고 조성하는 축에 가깝다.
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육성, 보호, 관리가 중심이므로 개발계획과의 직접 관련성은 가장 약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보호, 육성, 관리가 중심인 법률이므로 개발계획형보다 보전관리형 성격이 강하다.

② X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 이용과 공간계획의 기본 틀을 정하는 법률이므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이 매우 크다.
- 틀린 표현: 개발계획과 관련이 가장 적다
- 올바른 표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발계획과 관련성이 큰 법률이다.

③ X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과 녹지의 설치·조성·관리 체계를 다루므로 도시 공간계획과 직접 연결된다.
- 틀린 표현: 개발계획과 관련이 가장 적다
- 올바른 표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 개발 및 공간계획과 관련성이 큰 법률이다.

④ X
- 「경관법」은 경관계획 수립과 경관 형성의 기준을 다루므로 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이 높다.
- 틀린 표현: 개발계획과 관련이 가장 적다
- 올바른 표현: 경관법은 개발계획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법률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녹지, ④의 경관처럼 보전 이미지를 떠올리면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이 둘은 도시 공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조성할 것인지와 연결되는 법률이다. 반대로 ①은 대상이 산림자원 자체이므로 계획보다는 조성·보호·관리 축으로 봐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률명을 보면 먼저 규율 대상을 잡는다. 국토·도시·공원·경관처럼 공간의 배치와 형성을 다루면 개발계획 축으로, 산림자원·보호·관리처럼 자원 유지와 육성을 다루면 보전관리 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국토·공원·경관은 계획축이고, 산림자원은 관리축이다.

NoteBase

문 2. 사회·행태적 분석기법의 하나로 인간의 주변 환경, 혹은 행위의 결과로 남은 대상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이용자들의 요구, 설계자의 의도 등을 추론하는 방법은?

① 설문조사

② 참여관찰

③ 흔적관찰

④ 행태관찰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회·행태적 분석기법 가운데 직접 질문하는 방법, 직접 관찰하는 방법, 행위의 흔적을 해석하는 방법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설문조사는 이용자에게 직접 질문해 의견과 만족도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참여관찰은 조사자가 현장 활동에 일정하게 참여하면서 이용 행태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흔적관찰은 환경에 남은 마모, 이동 흔적, 이용 자국, 배치 변화 같은 행위 결과물을 조사해 이용 요구와 공간 의도를 추론하는 방법이다.
행태관찰은 실제 이용자의 행동, 동선, 체류, 활동 패턴을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설문조사는 응답자가 말한 의견을 수집하는 직접 질문 방식이다. 문제처럼 주변 환경이나 행위 결과로 남은 대상을 조사해 추론하는 방식과 다르다. 틀린 표현은 조사 방식의 성격이고, 올바르게는 설문조사는 질문지를 통해 요구를 직접 파악하는 방법이다.
2번 X: 참여관찰은 조사자가 활동이나 집단에 참여하면서 이용자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내부에서 관찰하는 방법이다. 남겨진 흔적을 해석하는 간접 추론 방식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참여관찰은 현장 참여를 통해 행태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3번 O: 흔적관찰은 인간의 주변 환경이나 행위 결과로 남은 물리적 흔적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이용자의 요구, 사용 방식, 설계 의도 등을 추론하는 방법이므로 문제의 설명과 일치한다.
4번 X: 행태관찰은 이용자의 실제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행동 그 자체보다 행동의 결과로 남은 대상과 환경 흔적을 해석하는 방법을 묻는다. 올바르게는 행태관찰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행동 패턴을 직접 기록하는 방법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흔적관찰과 행태관찰을 모두 관찰기법으로만 묶어 두면 헷갈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핵심 단서는 '행위의 결과로 남은 대상'이며, 직접 행동을 보는지 아니면 남겨진 흔적을 해석하는지로 갈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제에 질문지, 응답, 면담이 나오면 설문조사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조사자의 현장 참여가 나오면 참여관찰이다. 행동 자체를 실시간으로 본다면 행태관찰이고, 마모 흔적·이동 자국·배치 변화처럼 결과물로 추론하면 흔적관찰이다.

암기 포인트

직접 묻으면 설문, 함께 있으면 참여관찰, 행동을 보면 행태관찰, 남은 자국을 보면 흔적관찰이다.

NoteBase

문 3. 도시경관계획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들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점의 높이에 따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관을 앙감경, 같은 눈높이의 경관을 수평경,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경관을 부감경이라 부른다.

② 차폐율은 특정 조망지점에서 보여야 할 조망대상의 전체 입면적 중에서 가시면적을 제외한 인공물 등에 의해 차폐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③ 녹시율이란 특정 지점의 전망에서의 녹지요소의 점유율을 말한다.

④ 시곡면은 조망점과 조망대상을 잇는 각 단면의 최상점들을 연결시킨 곡면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경관계획에서 쓰는 조망 관련 개념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앙감경은 낮은 위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경관이고, 부감경은 높은 위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경관이며, 수평경은 같은 눈높이에서 보는 경관이다.
차폐율은 조망대상 입면 중 건물 등으로 가려진 면적의 비율이고, 녹시율은 전방 시야에서 녹지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시곡면은 조망점과 조망대상을 잇는 각 단면의 최상점을 연결해 얻는 곡면으로 스카이라인 검토에 활용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관을 앙감경',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경관을 부감경'이라고 한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경관은 부감경이고,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경관은 앙감경이다.
② O: 차폐율은 특정 조망점에서 보아야 할 조망대상 입면 가운데 건물 등 인공물에 의해 가려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므로 설명이 타당하다.
③ O: 녹시율은 특정 지점의 전방 시야에서 녹지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므로 설명이 맞다.
④ O: 시곡면은 조망점과 조망대상을 잇는 각 단면의 최상점들을 연결해 형성한 곡면이라는 뜻이므로 설명이 맞다.

오답 포인트

앙감경과 부감경은 방향만 뒤집어도 틀리기 쉬운 용어이다. '앙'은 우러러봄, '부'는 내려다봄이라는 시선 방향을 놓치면 ①처럼 정의를 서로 바꾸어 읽게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망 용어가 나오면 먼저 시점의 높이와 시선 방향을 확인한다. 위에서 아래면 부감경, 아래에서 위면 앙감경, 같은 높이면 수평경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부감경은 위에서 아래, 앙감경은 아래에서 위, 수평경은 같은 눈높이이다.

NoteBase

문 4. 경관(景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적 의미로는 산이나 들, 강, 바다 따위의 자연이나 지역의 풍경을 의미한다.

② 한자어 구성으로 보면 경(景)은 바라보는 주체를, 관(觀)은 보이는 대상을 의미한다.

③ 경관은 아름다운 대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④ 현행 「경관법」에서는 경관을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이라고 정의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관의 기본 개념과 한자어 구성, 그리고 법적 정의의 핵심 취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관은 자연물만이 아니라 인공 요소와 주민의 생활상이 어우러져 드러나는 지역환경적 특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자어로 보면 경(景)은 보이는 장면·대상 쪽이고, 관(觀)은 그것을 바라보는 행위 또는 주체 쪽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사전적 의미의 경관은 산, 들, 강, 바다 등 자연이나 지역의 풍경을 뜻하므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경(景)은 바라보는 주체, 관(觀)은 보이는 대상"이라는 표현이다.
경(景)은 보이는 장면·대상이고, 관(觀)은 그것을 바라보는 행위 또는 주체를 뜻하므로 선지의 대응이 뒤바뀌었다.
올바르게는 "경(景)은 보이는 대상, 관(觀)은 바라보는 주체 또는 보는 행위"이다.

③ O
경관은 반드시 아름다운 대상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일상적이거나 인공적인 환경, 심지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장면도 경관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옳다.

④ O
현행 경관법은 경관을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선지는 그 정의의 핵심 취지를 옮긴 것이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처럼 경과 관의 역할을 서로 바꾸어 놓으면 개념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쉽게 틀린다. 또 ③에서 경관을 "아름다운 것"으로만 좁혀 이해하면 일상적·인공적 경관을 놓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관 문제는 먼저 범위를 넓게 잡아 자연뿐 아니라 인공 요소와 생활상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그다음 한자어 설명에서는 경(景)=보이는 대상, 관(觀)=바라보는 주체·행위의 대응이 뒤바뀌지 않았는지만 점검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경관은 "보이는 장면(景)"과 "바라보는 행위(觀)"의 결합이며, 아름다운 자연만이 아니라 생활이 스며든 지역환경 전체를 포괄한다.

NoteBase

문 5. 일반적으로 조경계획의 기본계획 단계에서 진행하는 부문별 계획이 아닌 것은?

① 생활권계획

② 토지이용계획

③ 교통 · 동선계획

④ 시설물 배치계획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계획의 기본계획 단계에서 다루는 부분별 계획과 상위 생활권 개념을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본계획의 부분별 계획은 대상지 내부의 공간구성과 기능 배분을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토지이용계획은 용도별 공간 배분을 정하는 계획이고, 교통·동선계획은 사람과 차량의 이동체계를 정하는 계획이며, 시설물 배치계획은 필요한 시설의 위치와 배치를 정하는 계획이다. 반면 생활권계획은 대상지를 몇 개의 생활권으로 조직하는 상위 공간구조 개념에 가깝고, 일반적인 기본계획의 부분별 계획 항목으로 보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생활권계획은 지역을 생활권 단위로 나누어 조직하는 상위 계획 개념이다. 대상지의 세부 공간 배분과 시설 배치를 다루는 기본계획 단계의 부분별 계획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정답에 해당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을 부분별 계획이 아닌 것으로 보는 점이다. 실제로는 토지이용계획이 기본계획 단계의 대표적인 부분별 계획이다. 용도별 공간 배분과 기능 배치를 정하는 기본 골격이 된다.

③ X

틀린 부분은 교통·동선계획을 부분별 계획이 아닌 것으로 보는 점이다. 실제로는 교통·동선계획도 기본계획 단계의 부분별 계획이다. 보행과 차량의 흐름, 접근체계, 동선 연결을 정리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시설물 배치계획을 부분별 계획이 아닌 것으로 보는 점이다. 실제로는 시설물 배치계획 역시 기본계획 단계의 부분별 계획이다. 필요한 시설의 위치와 상호관계를 공간적으로 배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생활권이라는 말이 공간계획 용어처럼 보여 토지이용계획이나 동선계획과 같은 수준의 부분별 계획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기본계획의 부분별 계획은 대상지 내부를 구체적으로 짜는 항목이고, 생활권계획은 그보다 상위의 공간 조직 개념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대상지 내부의 구체적 배치와 기능 조정을 다루면 기본계획의 부분별 계획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생활권, 권역, 체계처럼 상위 공간구조를 나누는 개념이면 부분별 계획이 아닌지 먼저 본다.

암기 포인트

기본계획 부분별 계획은 토지이용·동선·시설배치이고, 생활권은 상위 공간조직 개념이다.

NoteBase

문 6. 도면중첩법(overlay metho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태적 특성에 부합하는 인간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주어진 대상지 내에 적응하는 토지이용을 찾아내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② 다양한 조건을 표시하는 도면들을 겹쳐 각 지역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③ 여러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토지를 찾아내는 적지 분석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④ 투명한 종이를 활용한 방법으로, 현재에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도면중첩법의 목적과 적용 방식, 그리고 수작업 중첩과 GIS 기반 중첩의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도면중첩법은 토양, 경사, 식생, 수문 등 여러 환경 조건을 각각 도면으로 만든 뒤 겹쳐서 토지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수작업 도면중첩은 투명한 종이를 겹치는 초기 방식이고, 현대의 도면중첩은 GIS를 활용한 디지털 중첩 분석으로 계속 활용된다.
핵심 차이축은 '기법 자체의 유효성'과 '초기 수작업 도구의 한계'를 구별하는 데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생태적 특성에 맞는 인간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적지와 부적지를 가려 내는 것이 도면중첩법의 대표적 목적이므로 옳다.

② O
여러 조건을 나타낸 도면을 겹친 뒤 지역별 점수나 적합도 값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므로 옳다.

③ O
여러 조건을 동시에 검토하여 특정 용도에 적합한 토지를 찾는 적지분석의 기본 기법으로 사용되므로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현재에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표현이다.
도면중첩법은 초기에는 투명한 종이를 겹치는 수작업 방식이었으나, 현재에는 GIS 기반의 디지털 중첩 분석으로 널리 활용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투명한 종이'라는 역사적 설명이 맞기 때문에 뒤의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까지 함께 맞는 말처럼 보이게 만든 선지이다. 수작업 도구는 줄었지만 중첩 분석의 원리와 방법 자체는 GIS로 이어졌다는 점을 놓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면중첩법 문제는 먼저 '여러 조건을 겹쳐 적합성을 판단하는가'를 본다. 그다음 수작업 방식의 쇠퇴와 기법 자체의 폐기를 혼동한 표현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도면중첩법은 투명지에서 시작해 GIS로 확장된 적지분석 기법이다.

NoteBase

문 7. <보기>의 환경설계의 학문 분야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환경설계에서 사회·행태적 분석의 이론적 기초가 되며, 물리적·사회적 환경과 인간행태 사이의 관계성을 밝히는 분야이다.

① 인간행태 및 경험과 인조환경의 경험적·이론적 관계성을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② 다소 엄격하지 않고 정밀하지 않은 방법이라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③ 시각적으로 지각되는 경관단위 혹은 경관요소의 생태적 특성에 관심을 갖는다.

④ 이론적이고 기초적인 연구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 및 그 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환경설계의 사회·행태적 분석 분야와 경관생태 분야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사회·행태적 분석은 물리적·사회적 환경과 인간행태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연구 분야이다. 경관생태 분야는 경관단위나 경관요소의 구조와 생태적 특성을 다루는 분야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인간행태와 인조환경의 경험적·이론적 관계를 밝히려는 설명이므로 <보기>의 사회·행태적 분석 분야와 맞는다.
2번 O: 사회·행태적 분석은 관찰, 설문, 면담, 실험 등 문제 해결에 유효한 여러 연구방법을 폭넓게 활용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3번 X: 틀린 부분은 "시각적으로 지각되는 경관단위 혹은 경관요소의 생태적 특성"이다. 이는 인간행태와 환경의 관계를 다루는 사회·행태적 분석이 아니라 경관생태 분야의 관심 대상이다. 올바르게는 "사회·행태적 분석은 물리적·사회적 환경과 인간행태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데 관심을 갖는다"라고 본다.
4번 O: 이 분야는 순수한 이론 연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설계의 문제 해결에 적용하려는 응용적 성격도 함께 가진다.

오답 포인트

③은 "경관단위", "경관요소", "생태적 특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는 인간행태 연구가 아니라 경관생태 쪽 핵심 어휘이다. <보기>의 핵심은 인간과 환경의 관계이지 경관의 생태적 구조가 아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문이나 제시에 인간행태, 물리적·사회적 환경, 상호관계가 나오면 사회·행태적 분석으로 본다. 반대로 경관단위, 경관요소, 생태적 특성이 나오면 경관생태 쪽 진술인지 먼저 가른다.

암기 포인트

인간행태-환경 관계는 사회·행태적 분석, 경관요소-생태 특성은 경관생태이다.

NoteBase

문 8. 역사경관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보존은 현재 상태의 파괴나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간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문화재보호법」상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③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역사문화보호구역이라고 한다.

④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특화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역사경관계획과 관련된 법정 용어 및 제도 구분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문화재 분류 체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정확한 명칭, 특화경관지구의 지정 취지를 구별하는 데 있다.

용어 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존할 필요가 있는 주변 지역을 말한다.
특화경관지구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유지·형성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는 경관지구의 한 유형이다.

핵심 구분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분류는 3가지가 아니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의 4가지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문화재 주변의 보호 대상 공간 명칭은 역사문화보호구역이 아니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경관 관련 제도에서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경관 등을 위해 특화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보존은 기존 상태를 가능한 유지하는 데 중심이 있고, 선지처럼 인간의 적극적 개입을 전면에 내세운 설명은 복원·정비의 성격에 더 가깝다.
틀린 표현: "인간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올바른 표현: 보존은 현재의 가치와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며, 적극적 개입을 통한 상태 변화는 복원·정비와 구별된다.

② X. 문화재보호법 체계에서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므로 3가지라는 설명은 틀리다.
틀린 표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3가지"
올바른 표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의 4가지로 구분한다.

③ X.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의 정확한 법정 명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틀린 표현: "역사문화보호구역"
올바른 표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④ O.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특별한 경관을 보호·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특화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역사경관계획에서 주변 경관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정확히 짚고 있다.

오답 포인트

②는 분류 항목 수를 줄여 기념물을 누락시키는 방식의 함정이다. ③은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법정 용어를 살짝 바꾼 함정이다. ①은 보존과 복원·정비의 개입 정도를 뒤섞어 개념을 흔드는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역사경관계획 문제는 먼저 법정 용어가 정확한지 본다. 다음으로 분류 항목 수가 축소되거나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보존, 복원, 정비처럼 개입 정도가 다른 개념을 구분하면 정답을 빠르게 가릴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문화재는 4분류, 주변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특별 경관 관리는 특화경관지구이다.

NoteBase

문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기>의 조건으로 조성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보기>
• 유치거리: 800m
• 공원 부지면적: 110, 000m^2
• 공원 시설면적: 50, 000m^2

① 소공원
② 도보권 근린공원
③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④ 체육공원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유형별 설치기준과 공원시설 부지면적 상한을 함께 적용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의 유치거리, 최소면적, 공원시설 부지면적 비율을 구별하는 데 있다.

용어 풀이

유치거리 = 해당 공원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접근하는 거리 기준이다.
공원시설 부지면적 = 공원 전체 면적 중 시설이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의 상한 비율이다.

핵심 구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도보권 근린공원은 유치거리 1천미터 이하, 규모 3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은 규모 10만제곱미터 이상이다. 체육공원은 유치거리 제한이 없고 규모 1만제곱미터 이상이다.
같은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근린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40% 이하이고 체육공원은 50% 이하이다.
보기의 공원시설 비율은 50,000 ÷ 110,000 × 100 ≈ 45.5%이므로 근린공원 기준 40%는 넘고 체육공원 기준 50%는 충족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소공원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이 20% 이하여야 하는데 보기의 비율은 약 45.5%이므로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 소공원
올바른 표현: 공원시설 부지면적 비율 때문에 소공원으로는 조성할 수 없다.

② X
도보권 근린공원은 유치거리 1천미터 이하, 규모 3만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점에서는 맞지만 공원시설 부지면적이 40% 이하여야 한다. 보기의 45.5%는 이 상한을 넘는다.
틀린 표현: 도보권 근린공원
올바른 표현: 유치거리와 규모는 맞아도 공원시설 부지면적 비율 때문에 도보권 근린공원은 될 수 없다.

③ X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은 규모 10만제곱미터 이상이므로 면적은 맞지만, 근린공원 공통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상한 40%를 초과하므로 조성할 수 없다.
틀린 표현: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올바른 표현: 면적은 맞지만 공원시설 부지면적 비율이 40%를 넘어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은 될 수 없다.

④ O
체육공원은 유치거리 제한이 없고 규모가 1만제곱미터 이상이면 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도 50% 이하이면 된다. 보기의 800미터, 110,000제곱미터, 50,000제곱미터는 이 기준에 맞는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③은 유치거리와 규모만 보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쉽게 고르기 쉽다. 그러나 근린공원은 세부 유형이 달라도 공원시설 부지면적 상한이 모두 40% 이하라는 점을 놓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원 유형 문제는 먼저 별표 3으로 유치거리와 최소면적을 맞춘 뒤, 바로 별표 4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상한을 대입해 걸러내면 된다. 위치와 규모를 충족해도 시설면적 비율에서 탈락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시설면적 상한은 소공원 20%, 근린공원 40%, 체육공원 50%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0. 생태조경계획의 물순환 구축 대안으로서의 분산식 빗물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분산식 빗물관리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유출수를 빗물이용, 침투, 저류시설 등을 이용하여 집수 후 분산 처리하는 관리 방식이다.

② 분산식 빗물관리의 주요 목적은 유출되는 빗물을 신속히 집수하여 관거를 통해 배제함으로써 수해로부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③ 분산식 빗물관리는 건축물을 포함한 개발대지에서 빗물을 자연적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단지규모로 개발될 경우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④ 빗물의 침투, 증발량을 늘림으로써 유입량을 늘린다는 개념이며, 투수포장면의 증대, 지붕녹화, 지표상의 침투, 저류연못 등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분산식 빗물관리의 핵심 개념이 유출수의 신속 배제가 아니라 발생지점 중심의 침투·저류·증발산을 통한 물순환 회복이라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분산식 빗물관리는 빗물을 한곳에 빨리 모아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발생한 곳 또는 그 인접 공간에서 침투·저류·이용·증발산으로 처리하여 유출량과 첨두유출을 줄이는 관리 방식이다.
개별 대지 수준에서는 건물과 포장면 주변의 소규모 시설을 활용하고, 단지 규모에서는 토지이용 구조와 배수체계를 함께 고려하므로 적용 접근이 달라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집수 후 분산 처리"이다. 분산식 빗물관리는 유출수를 먼저 한곳에 집수한 뒤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발생지점 또는 가까운 곳에서 빗물이용·침투·저류시설 등으로 분산 처리하는 방식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유출되는 빗물을 신속히 집수하여 관거를 통해 배제"이다. 이는 전통적인 우수배제 중심의 관거식 관리에 가깝다. 분산식 빗물관리의 주요 목적은 빗물을 가능한 현장에서 머물게 하거나 스며들게 하여 유출량과 홍수부하를 줄이고 물순환을 회복하는 데 있다.
③ O. 분산식 빗물관리는 개별 대지 차원의 소규모 저영향개발 기법과 단지 규모의 종합적 배치 계획을 구분해 접근한다. 건축물을 포함한 대지에서는 지붕, 포장, 녹지, 저류공간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단지 규모에서는 토지이용과 배수 동선을 함께 설계하므로 접근 방법이 달라진다.
④ X. 틀린 부분은 "유입량을 늘린다"이다. 분산식 빗물관리는 빗물의 침투와 증발산을 늘려 직접 유출량과 첨두유출을 줄이는 개념이다. 투수포장, 지붕녹화, 침투도랑, 저류연못 등은 유입량 증가가 아니라 유출 저감과 지하수 함양에 기여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분산식 빗물관리라는 말 때문에 ①의 "집수 후 분산 처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분산식의 핵심은 처리시설이 흩어져 있다는 점만이 아니라 빗물을 원지점에서 최대한 처리한다는 점이다. 또한 ④처럼 침투량이 늘면 무엇인가가 늘어난다는 문장에 끌리기 쉬우나,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직접 유출량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빗물을 빨리 모아 관거로 빼낸다는 표현이 나오면 전통적 배수 방식으로 본다. 침투·저류·증발산·빗물이용처럼 현장 처리와 유출 저감을 강조하면 분산식 빗물관리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분산식 빗물관리 = 현장 처리, 유출 저감, 물순환 회복이다.

NoteBase

문 11. 「경관법」 상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명칭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가)·(나)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가): 보전, (나): 조성
② (가): 보존, (나): 관리
③ (가): 보전, (나): 관리
④ (가): 보존, (나): 조성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경관법」 제1조 목적조항의 핵심 문구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보전은 현재의 경관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관리는 경관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형성은 새로운 경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핵심 구분

제1조의 문구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이다. '보존'은 비슷해 보여도 이 조문의 표현이 아니고, '조성'은 뒤 문장에 나오지만 괄호 안 두 명칭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1번: X. (가)는 '보전'으로 맞지만 (나)를 '조성'으로 넣은 부분이 틀리다. 조문은 '보전·관리 및 형성'이다. 틀린 표현은 '(나) 조성'이고, 올바른 표현은 '(나) 관리'이다.
2번: X. (나) '관리'는 맞지만 (가)를 '보존'으로 적은 부분이 틀리다. 제1조는 '보존'이 아니라 '보전'이라고 규정한다. 틀린 표현은 '(가) 보존'이고, 올바른 표현은 '(가) 보전'이다.
3번: O. 제1조의 표현인 '보전·관리 및 형성'을 그대로 짝지은 선택지이므로 옳다. (가)는 '보전', (나)는 '관리'이다.
4번: X. (가)를 '보존', (나)를 '조성'으로 적어 두 부분 모두 조문과 다르다. 틀린 표현은 '(가) 보존, (나) 조성'이고, 올바른 표현은 '(가) 보전, (나) 관리'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보전'과 '보존'을 같은 말처럼 처리했거나, 뒤 문장의 '조성'을 괄호 안 용어로 끌어온 경우가 많다. 법조문 암기 문제는 비슷한 유의어 치환에 특히 약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조문 빈칸 문제는 유사어로 바꾸지 말고 조문에 적힌 연결 구조를 통째로 확인한다. 이 조문은 '보전·관리 및 형성'이라는 3단 구성을 먼저 잡으면 바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경관법 목적 조문은 '보전 → 관리 → 형성'의 순서이다.

NoteBase

문 12. 관광지 개발계획의 시설 공급규모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최대일률(Rd) 산출식은 최대일 이용자수/연간 관광객수이다.

② 우리나라의 3계절형의 최대일률은 1/80 정도로 본다.

③ 회전율은 당일의 전체 방문객에 대하여 가장 많은 시점의 방문객수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④ 해수욕장, 스키장과 같이 여름, 겨울 등 일정 계절에만 이용자가 집중하는 곳을 1계절형이라고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관광지 시설 공급규모 산정에서 쓰는 최대일률, 회전율, 계절형 분류를 정확히 구분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최대일률은 연간 관광객수 중 최대일 이용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회전율은 당일 총방문객 중 가장 많은 시점의 방문객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시설의 동시 수용 규모를 잡을 때 쓰는 값이다.
계절형은 이용 집중 시기의 수로 나누며 한 계절에 수요가 몰리면 1계절형, 세 계절에 걸쳐 이용이 이뤄지면 3계절형으로 본다.

선지별 해설

① O. 최대일률 R_d는 최대일 이용자수/연간 관광객수로 산정한다. 선지의 식이 정의와 일치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3계절형의 최대일률은 1/80"이라는 수치이다. 3계절형의 최대일률은 통상 1/60 정도로 보므로 1/80이라고 한 진술은 잘못이다.
③ O. 이 문맥의 회전율은 당일 총방문객에 대한 최대 시점 방문객수의 비율을 뜻한다. 하루 이용객이 시간대별로 얼마나 겹쳐 존재하는지를 보여 주는 값이므로 선지 설명이 맞다.
④ O. 해수욕장과 스키장처럼 특정 한 계절에 이용이 집중되는 관광지는 1계절형으로 분류한다. 선지의 예시와 분류가 맞다.

오답 포인트

최대일률의 계절형별 대표 수치를 외우지 못하면 ②처럼 그럴듯한 분수값에 흔들리기 쉽다. 또 회전율을 하루 총이용객 대비 최대 시점 이용객 비율로 보지 못하면 ③을 거꾸로 판단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설 공급규모 문제는 먼저 용어를 정의로 끊어 판단한다. 최대일률은 연간 대비 최대일, 회전율은 당일 대비 최대 시점, 계절형은 이용 집중 계절 수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최대일률은 연간 대비 최대일, 회전율은 당일 대비 최대 시점, 3계절형 최대일률은 1/60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3. 자연공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국립공원(national park)은 일정 면적 이상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뛰어난 자연지역으로 국가가 책임 관리하여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② 미국의 국립공원체계는 자연적 야생지역, 역사 · 문화재지역, 미적 · 교육적 지역의 3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③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카테고리 II 와 우리나라 「자연공원법」에 명시하고 있는 국립공원의 목적은 동일하다.

④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카테고리에 따른 자연생태계 보전 목적의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설악산, 지리산, 속리산, 북한산, 한라산 5개소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IUCN의 국립공원 개념, 미국 국립공원체계의 전통적 분류, 우리나라 「자연공원법」의 목적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IUCN의 국립공원은 비교적 넓은 자연지역을 공적 권한 아래 보전하면서 교육·문화·휴양 목적의 이용을 허용하는 개념이다. 미국 국립공원체계의 전통적 대분류는 자연지역, 역사지역, 휴양지역이다. 우리나라 「자연공원법」의 목적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IUCN의 전통적 국립공원 정의는 비교적 넓은 지역이어야 하고, 인간의 이용과 점유로 생태계가 본질적으로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가의 최고 권한에 의해 보호되고 방문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한다. 선지는 이 핵심을 요약한 설명이므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미적·교육적 지역의 3범주"이다. 미국 국립공원체계의 전통적 대분류는 자연지역, 역사·문화지역, 휴양지역이다. 올바르게는 "자연지역, 역사·문화재지역, 휴양지역의 3범주"라고 정리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목적은 동일하다"이다. IUCN 카테고리 II는 대규모 생태계 과정과 대표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양립 가능한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데 무게가 있다. 반면 「자연공원법」은 자연생태계뿐 아니라 자연 및 문화경관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까지 함께 목적으로 삼는다. 올바르게는 "서로 관련은 있지만 목적과 강조점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라고 본다.

④ X
틀린 부분은 "설악산, 지리산, 속리산, 북한산, 한라산 5개소"이다. 환경부 자료상 IUCN 카테고리 II로 인정된 국립공원은 5개소보다 많았고, 북한산은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카테고리 V 유지 대상이었다. 올바르게는 "북한산은 해당 5개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카테고리 II 국립공원 수도 5개소로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고친다.

오답 포인트

IUCN의 국립공원 개념과 우리나라 법률상 국립공원 목적을 같은 말로 받아들이면 ③에 흔들리기 쉽다. 또한 유명한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북한산을 생태계 보전형 IUCN 카테고리 II에 넣으면 ④를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립공원 관련 분류 문제는 정의, 관리주체, 목적, 대표 사례의 네 축으로 판단한다. IUCN은 대규모 자연생태계 보전 중심, 미국 체계는 자연·역사·휴양의 대분류, 우리나라 「자연공원법」은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의 병행이라는 점을 먼저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IUCN II는 생태계 보전형, 미국 3분류는 자연·역사·휴양, 「자연공원법」은 보전+지속 가능한 이용이다.

NoteBase

문 14. <보기>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중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이다.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대지면적이 $1,500m^2$, 각 층의 면적이 $500m^2$인 3층 건물을 조성한다고 할 때 확보해야 할 조경면적은? (단, 건축물의 각 층 면적은 동일하다.)

<보기>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다)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① $500m^2$ 이상
② $225m^2$ 이상
③ $150m^2$ 이상
④ $75m^2$ 이상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보기의 조경 기준에서 연면적 구간을 먼저 정한 뒤, 그 구간의 대지면적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조건 정리

대지면적은 $1,500m^2$이다.
각 층 면적은 $500m^2$이고 3층이므로 연면적 합계는 $500 \times 3 = 1,500m^2$이다.
연면적 $1,500m^2$는 1천㎡ 이상 2천㎡ 미만 구간이므로 보기 (나)의 10퍼센트 기준을 적용한다.

핵심 구분

보기 (가)는 연면적 2천㎡ 이상일 때 대지면적의 15퍼센트 기준이다. 보기 (나)는 연면적 1천㎡ 이상 2천㎡ 미만일 때 10퍼센트 기준이다. 보기 (다)는 연면적 1천㎡ 미만일 때 5퍼센트 기준이다.

계산 과정

연면적 합계는 $500 \times 3 = 1,500m^2$이다.
적용 비율은 10퍼센트이므로 필요한 조경면적은 $1,500 \times 0.10 = 150m^2$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500m²는 각 층의 면적일 뿐 조경면적 기준이 아니다. 이 문항의 조경면적은 연면적 구간을 정한 뒤 대지면적에 비율을 곱해 구한다. 틀린 표현은 "500m² 이상"이고, 올바른 표현은 "150m² 이상"이다.
② X. 225m²는 대지면적 1, 500m²의 15퍼센트로서 연면적 합계가 2천㎡ 이상일 때의 값이다. 이 문항의 연면적 합계는 1, 500m²이므로 15퍼센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틀린 표현은 "225m² 이상"이고, 올바른 표현은 "150m² 이상"이다.
③ O. 연면적 합계가 1, 500m²이므로 보기 (나)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지면적 1, 500m²의 10퍼센트인 150m² 이상을 확보해야 하므로 옳다.
④ X. 75m²는 대지면적 1, 500m²의 5퍼센트로서 연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일 때의 값이다. 이 문항은 그보다 큰 1, 500m²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75m² 이상"이고, 올바른 표현은 "150m² 이상"이다.

오답 포인트

연면적과 대지면적을 혼동하거나, 연면적 구간 판정을 생략한 채 15퍼센트 또는 5퍼센트를 바로 적용하면 오답이 된다. ①은 층면적 500m²를 그대로 답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연면적 합계를 층수까지 반영해 계산한 뒤, 그 연면적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정한다. 그다음에만 해당 비율을 대지면적에 곱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조경면적 문제는 연면적으로 구간을 고르고, 계산은 대지면적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NoteBase

문 15.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의 거리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공원의 최고봉 1,200m 이상일 때 경계로부터의 거리는 2,000m이다.

② 자연공원의 최고봉 700m 이상일 때 경계로부터의 거리는 1,000m이다.

③ 생태 · 경관보전지역의 최고봉 700m 이상일 때 경계로부터의 거리는 1,000m이다.

④ 생태 · 경관보전지역의 최고봉 700m 이하 또는 해상형일 때 경계로부터의 거리는 500m이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 지역의 경계거리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자연공원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구분하고 최고봉 높이에 따라 적용 거리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 거리란 보호지역 경계 밖에서도 일정 거리 안의 개발사업이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협의해야 하는 범위를 뜻한다.

핵심 구분

자연공원은 최고봉 1,200m 이상이면 2,000m, 700m 이상이면 1,500m, 700m 미만 또는 해상형이면 1,000m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최고봉 700m 이상이면 1,000m, 최고봉 700m 이하 또는 해상형이면 500m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자연공원은 최고봉이 1,200m 이상이면 경계로부터 2,000m까지가 협의대상 거리이므로 옳다.

② X
자연공원은 최고봉이 700m 이상이면 경계로부터 1,500m가 기준이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 "거리는 1,000m이다."
올바른 표현: "거리는 1,500m이다."

③ O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최고봉이 700m 이상이면 경계로부터 1,000m이므로 옳다.

④ O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최고봉이 700m 이하이거나 해상형이면 경계로부터 500m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자연공원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거리기준을 서로 바꾸어 외우면 ②와 ③이 쉽게 뒤섞인다. 특히 자연공원의 700m 이상 기준은 1,000m가 아니라 1,500m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보호지역 유형이 자연공원인지 생태·경관보전지역인지 구분한 뒤, 다음으로 최고봉 높이 구간을 대입해 거리를 판단하면 된다. 자연공원은 2,000m-1,500m-1,000m의 3단계이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은 1,000m-500m의 2단계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자연공원은 더 넓게,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더 좁게 본다. 자연공원 700m 이상은 1,500m, 생태·경관보전지역 700m 이상은 1,000m이다.

NoteBase

문 16. 국토 및 도시계획에서의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이용을 결정하는 이론 중 가장 보편적으로 상용되는 개념인 생태학적 접근에는 동심원이론(concentric zone theory), 선형이론(sector theory), 다핵심이론(multiple nuclei theory) 등이 있다.

②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제도로서 용도지역지구제를 도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용도를 지정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구뿐만 아니라 여타의 법으로 지정된 주거단지나 관광단지 등을 계획할 때도 수립하게 된다.

④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경제적 계획을 위한 개발수단과 생태적 계획을 위한 환경적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토지이용계획의 일반 기능과 지구단위계획의 세부 실행 기능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토지이용계획은 토지를 어떤 용도로 배분하고 개발과 보전을 어떻게 조정할지 정하는 상위 계획 개념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건축물 배치, 용도, 규모, 가로와 공지 등을 구체화하는 세부 실행형 도시관리계획이다.
생태학적 접근은 도시 토지이용 구조를 도시생태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론군으로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이 대표적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은 도시 내부 토지이용 패턴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도시생태학적 접근이다. 따라서 생태학적 접근의 예시로 든 것은 타당하다.
2번: O. 토지이용계획은 용도지역지구제를 통해 실제 공간에 구현된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허용 용도와 행위 기준을 달리 정하는 방식은 토지이용계획의 전형적인 실현 수단이다.
3번: O. 지구단위계획은 일반적인 용도지구 관련 관리뿐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단지, 관광단지 등 일정 개발지의 구체적 공간계획을 세울 때도 활용된다. 즉 특정 구역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맞는 설명이다.
4번: X. 틀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경제적 계획을 위한 개발수단과 생태적 계획을 위한 환경적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진술이다. 개발과 보전의 이중 기능은 토지이용계획 일반의 성격에 관한 설명에 가깝고, 지구단위계획은 그 내용을 지구 단위에서 구체화하는 세부 실행계획이다. 올바르게는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과 보전 기능을 함께 가지며, 지구단위계획은 이를 일정 구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계획이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4번은 '개발과 보전의 이중 기능'이라는 상위 계획의 성격을 '지구단위계획' 자체의 정의처럼 바꿔 붙인 점이 함정이다. 토지이용계획의 일반론과 지구단위계획의 실행수단성을 섞어 읽으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계획의 '기능'을 묻는지, '수단'을 묻는지부터 구분하면 된다. 상위 개념인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과 보전의 방향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은 그 방향을 특정 구역에서 세부 기준으로 구현하는지 확인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토지이용계획은 방향 설정, 지구단위계획은 지구 단위 실행이다.

NoteBase

문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녹지는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설치·관리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한 환경이어야 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을 심는 등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관리하며, 그 녹화면적률이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재해발생시의 피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녹지에는 관목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7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또는 사람·말 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녹지에는 나무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6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④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녹지 설치 · 관리 기준 중 완충녹지의 식재 방식, 녹화면적률, 폭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녹화면적률은 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와 잎의 수평투영면적 비율을 뜻한다.
완충녹지는 공해 차단 · 완화, 재해 발생 시 피난, 토지이용 충돌 완화 등을 위해 설치되는 녹지이다.

핵심 구분

공장 ·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차단하거나 재해 시 피난지대로 기능하는 완충녹지는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세부 기준을 따른다.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 지역 인접 녹지는 교목 중심 은폐형으로 설치하고 녹화면적률 50퍼센트 이상, 재해 피난용 녹지는 관목 또는 잔디 등 지피식물을 심고 녹화면적률 70퍼센트 이상, 보안 · 접근억제 · 토지이용 조절용 녹지는 가목 · 나목의 식물 등을 심고 녹화면적률 80퍼센트 이상이 기준이다. 완충녹지의 폭은 일반적으로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 연구시설 등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 시설 인접 녹지는 교목을 심어 원인시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 · 관리한다는 부분은 맞다. 그러나 녹화면적률은 40퍼센트 이상이 아니라 50퍼센트 이상이다. 틀린 표현은 "40퍼센트 이상"이고, 올바른 표현은 "50퍼센트 이상"이다.
② O. 재해 발생 시 피난 또는 그와 유사한 경우를 위한 녹지는 관목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고, 녹화면적률이 7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선지의 식재 대상과 비율이 시행규칙 기준과 일치한다.
③ X.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사람 · 말 등의 접근 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등을 위한 녹지는 나무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는다는 부분은 맞다. 그러나 녹화면적률은 60퍼센트 이상이 아니라 80퍼센트 이상이다. 틀린 표현은 "60퍼센트 이상"이고, 올바른 표현은 "80퍼센트 이상"이다.
④ X. 완충녹지의 폭은 일반 기준상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선지의 "최소 5미터 이상"은 일반 기준을 낮춘 표현이다. 올바른 표현은 "최소 10미터 이상"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완충녹지의 용도별 녹화면적률 50퍼센트, 70퍼센트, 80퍼센트와 폭 10미터 기준을 서로 바꾸어 제시한 점이다. ②의 70퍼센트는 재해 피난용 녹지에 붙는 수치이고, ③의 보안 · 접근억제 용도에는 80퍼센트가 붙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충녹지 기준 문제는 먼저 설치 목적을 확인한 뒤 조용한 시설 인접은 50퍼센트, 재해 피난용은 70퍼센트, 보안 · 접근억제 · 토지이용 조절용은 80퍼센트, 폭은 일반적으로 10미터 이상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완충녹지는 조용한 곳 50, 피난 70, 보안 · 접근억제 80, 폭 10미터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8. 생태조경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도로는 바람의 통로가 되므로 바람길과 평행하여 배치하는 것이 난방비를 절약하는 데 효과적이다.

② 여름철 고온인 지역의 건물지붕 및 외벽은 태양복사의 흡수율이 높은, 즉 알베도(albedo)가 낮은 계통의 색채로 마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③ 투수계수 10-5cm/s 미만, 점토 40% 이상 되는 구역에는 침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④ 생태연못은 대형의 소수보다는 소형의 다수를 배치하는 것이 기능상 유리하며, 최소크기는 $200m^2$를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태조경계획에서 바람길, 알베도, 침투 적합 토양, 생태연못 배치 원칙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바람길은 바람을 통하게 하는 공간축이므로 여름 통풍에는 도움이 되지만 겨울에는 한랭풍 유입으로 열손실을 키울 수 있다.
알베도는 태양복사 반사율이므로 더운 지역 외피는 알베도가 높은 밝은 색이 유리하다.
침투시설은 투수성이 좋은 토양에서 효과가 크고, 점토질의 저투수 토양에서는 효과가 떨어진다.
생태연못은 하나의 큰 연못보다 여러 소형 연못을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 다양한 서식환경 형성에 유리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바람길과 평행하여 배치하는 것이 난방비를 절약한다"이다. 도로가 바람의 통로가 되면 겨울철 찬바람이 시가지를 깊게 통과해 건물의 열손실이 커질 수 있으므로 난방비 절약 논리와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겨울 우세풍은 차단하고 여름 통풍은 확보하도록 배치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흡수율이 높은, 즉 알베도가 낮은 계통의 색채"이다. 여름철 고온 지역의 지붕과 외벽은 태양복사를 많이 반사해야 냉방부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알베도가 높은 밝은 색이 효과적이다. 올바르게는 흡수율이 낮고 알베도가 높은 색채로 마감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침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이다. 투수계수가 10^{-5}cm/s 미만이고 점토 함량이 40% 이상이면 물이 잘 스며들지 않아 침투시설의 효율이 낮다. 올바르게는 이런 구역은 침투시설보다 저류나 배수 중심 대책을 검토한다.
④ O: 생태연못은 한 개의 대형 연못만 두는 방식보다 여러 소형 연못을 배치하는 편이 다양한 미소서식처를 만들기 쉽고 생태 네트워크 형성에도 유리하다. 또한 최소 규모로 약 $200m^2$ 정도를 확보하는 설명도 생태 기능 확보 방향과 부합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바람길이 항상 좋은 것처럼, ②는 어두운 색이 차광에 유리한 것처럼, ③은 친환경 시설이면 어느 토양에서나 효과적인 것처럼 일반화한 표현이 함정이다. 이 문항은 계절별 풍환경, 반사율 개념, 토양 투수성 조건을 각각 반대로 뒤집어 놓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풍환경은 여름 통풍과 겨울 방풍을 분리해서 판단하고, 알베도는 반사율이 높을수록 더운 지역에 유리하다고 본다. 침투시설은 먼저 토양 투수성과 점토 함량을 확인하고, 생태연못은 분산 배치와 최소 면적 확보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바람길은 여름 통풍·겨울 방풍을 함께 보고, 더운 지역 외피는 고알베도, 저투수 점토지는 비침투, 생태연못은 소형 다수와 최소 $200m^2$ 확보가 핵심이다.

NoteBase

문 1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그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④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접근로의 구조·재질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유효폭, 휴식참, 기울기, 연석 기준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50미터마다 두는 교행구역과 30미터마다 두는 휴식참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용어 풀이

교행구역은 휠체어나 유모차가 서로 비켜 지나가도록 두는 공간이고, 참은 경사진 접근로에서 휠체어사용자가 쉬도록 두는 수평 휴식공간이다.

핵심 구분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18분의 1 이하이며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한 50미터 기준은 교행구역에 관한 기준이고, 30미터 기준은 경사진 접근로의 휴식참에 관한 기준이다. 연석의 높이와 색상·질감은 허용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접근로의 유효폭은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과 일치한다.

② X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의 기준은 50미터마다가 아니라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두는 것이다.
틀린 표현: "50미터마다"
올바른 표현: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③ O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가 원칙이고,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④ O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고,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숫자 하나만 바꿔 놓은 선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행구역의 50미터 기준을 휴식참 기준에 잘못 붙여 놓은 함정이다. 접근로 기준에서는 50미터와 30미터가 서로 다른 시설에 대응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접근로 관련 선지는 먼저 무엇에 대한 기준인지부터 나누어 본다. 통행 폭인지, 교행구역인지, 휴식참인지, 기울기인지, 경계 연석인지 항목을 먼저 특정하면 숫자와 허용 여부를 안정적으로 판별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접근로는 폭 1.2미터, 기울기 1/18, 교행구역 50미터, 휴식참 30미터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20.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②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③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④ 공원녹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 각 호가 열거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록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선지에 제시된 계획이 제9조 각 호에 실제로 열거되어 있는지를 대조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전략환경영향평가 = 개발사업이 확정되기 전 상위 계획 단계에서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평가이다.

핵심 구분

법 제9조제1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을 각 호로 열거한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항만·도로·철도의 건설에 관한 계획,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등이 있다.
선지 ①(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②(수자원의 개발), ③(도시의 개발)은 모두 이 각 호에 그대로 들어 있다.
반면 '공원녹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은 제9조 각 호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1

선지별 해설

① O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직접 열거된 대상계획이다.
-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상위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을 검토해야 하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② O
-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도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직접 열거된 대상계획이다.
- 댐, 하천, 용수 개발처럼 광범위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분야이므로 상위계획 단계의 평가대상으로 본다.

③ O
-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역시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직접 열거되어 있다.
-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개발 계열 계획은 대표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주이다.

④ X
- '공원녹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제9조 각 호는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도로·철도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관광단지의 개발, 산지의 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원녹지의 조성'은 포함하지 않는다.
- 따라서 공원녹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환경보전과 가까운 분야라서 당연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막연히 연결하면 틀리기 쉽다. 이 문제는 실제 대상 여부를 넓게 추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9조 각 호에 그 계획 유형이 실제로 적혀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형 선지는 먼저 무엇을 기준으로 묻는지 확인한다. 제9조 각 호의 열거 여부를 묻는다면, 선지에 제시된 계획 유형이 각 호 목록에 실제로 있는지 하나씩 대조하고, 목록에 없는 계획을 골라낸다.

암기 포인트

제9조제1항 각 호에 실제로 적혀 있는 계획 유형(도시개발·산업입지·수자원개발·관광단지 등)인지 대조하는 것이 핵심이며, '공원녹지의 조성'은 각 호에 없다.

NoteBase